



한명숙 총리, AI 발생지역 방문

농림부·익산지역 AI상황실 방문해 격려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월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 익산을 방문해 피해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2월 3일 오후 열차편으로 익산을 찾은 한 총리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과 함께 익산시청 인근 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방역대책본부에서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시로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인과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시가 발생한 익산시 함열읍과 황등면 등에 설치된 통제소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11월 26일에도 농림부 AI 상황실을 방문해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닭·오리고기 소비가 감소하여 생산자 단체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당부한 바 있다.

또 AI 걸린 닭이 외부로 유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생산자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농림부

전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농림부는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 소재 종계(種鷄)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가금류에 피해가 큰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이후 11월 27일 저녁 최초 발생 농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경계지역내 종계농장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들이 최초 발생 농장과 관련성 등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가 경계지역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추가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를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전북 익산 소재 부화장 2개소에서 부화중인 종란(種卵) 600여만 개와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km) 안에서 생산되는 식용달걀을 모두 폐기기로 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농림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시가 11월 27일 추가 발생한 이후 확산되지는 않았으나 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기경보 발령을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시키고, 또 AI 발생 1, 2차 지역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의 가금류 등을 살처분 해야 할 것을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박홍수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살처분 범위가 발생 농장 500m내에서 3km로 확대됐으며, 당초 5농가 15만5천수에서 40농가 76만4천수로 60만9천수의 추가 살처분 작업을 실시했다.

또 농림부에 설치된 'AI방역대책본부'가 '중앙가축대책본부'로 한 단계 높아지고, 전북도에만 두었던 방역대책본부가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됐다.

농림부는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 보호복 지급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농가에게 AI 의심 닭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조사하여 살처분 보상금,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AI 발생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발표



농림부는 12월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북 익산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첫째, 닭·오리, 계란 등의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초 신고일(11.22) 이전 7일간(11.15~11.21)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보상하며, 구체적인 가격은 시·군의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살처분으로 인한 당장의 생계를 돕기 위해 살처분 보상평가반의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의 50%는 우선 가 지급되며, 보상금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금액과 가지급금 차액을 정산 처리하게 된다.

둘째, 살처분 농가(계열업체는 제외, 단 계열업체 소속 농가는 포함)는 살처분 후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제한 받기 때문에 재입식 출하 때까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이동제한 조치 이전에 닭·오리를 출하한 후, 이동제한조치로 입식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최고 1,300만원 한도에서 구간별로 지원된다.

셋째,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구매비용을 연리 3%(2년거치 3년상환)로 지원한다.

넷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부화장, 사료공장, 도계장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사료생산능력), 부화비용(사료판매가격) 및 영업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리 3%(2년거치 3년상환)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다섯째, 경계지역(3~10km 이내)의 양계산물은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계열화 농가가 아닌 비계열화농가의 양계산물은 “방역상황이 진정된다고 판단되는 12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수매시점의 시가로 수매를 실시한다.

여섯째, 시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방역조치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농업경영자금, 농특자금, 촉발자금, 부채대책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에 대해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2년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

아울러 발생조치지역 이외의 익산시 관내 축산농가와 익산시 관내 경종농가 등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위의 각종 정책자금에 대해 방역조치지역 축산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간 연장 조치된다.

농림부는 금번 조치로 농가들이 닭·오리 사육을 재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유통 중인 닭·오리·계란은 안전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양계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의 안심을 위해 지난 12월 1일 닭·오리·계란 등을 먹고 AI 감염시 최대 20억원을 보상하는 AI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보건복지부 장관, 닭고기 소비촉진 당부

지난 11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을 갖



점을 강조했다.

농림부는 지난 2003년 12월 AI가 국내 처음 발병했을 당시에는 닭고기 소비가 60%나 줄어들면서 농가 피해가 막심해 자살자가 속출하기도 했었다며 소비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과잉반응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12월 1일자로 교육부에 저병원성 AI 발생지역 방문금지 등 사실과 다른 교육 및 홍보를 하지 말도록 요구했으며,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하며 학교 급식에서 제외하지 말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AI 피해농가 대출 상환연장, 이자감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1월 30일 전북 익산 AI 방역현장을 방문해 관계관을 격려하고 AI 확산방지와 조속한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시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의 상환기간을 즉시 연장(1~2년간)하고 이자도 감면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대일 삼계탕 수출 재개

농림부는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이 잠정 중단된 삼계탕에 대해 일본 정부가 12월 4일 이후부터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삼계탕의 신속한 대일 수출재개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실시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본 정부의 시관련 요구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삼계탕이 열처리된 식품으로 사전 파와 관계가 없다는 국제기준 등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국내의 철저한 방역조치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측의 수입재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삼계탕은 700톤(3,392천\$)이며, 그 중 94%에 해당되는 657톤(3,118천\$)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이미 수출되었던 가금육에 대해서도 AI 잠복기(21일)를 감안하여 10월 28일 이전에 도축된 것은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7년도 제51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공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2007년도 제 51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수의사법 제9조 각호의 규정, 부칙(제

5953호, 1999.3.31) 제4항 및 부칙(제7546호, 2005.5.31)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시험은 2007년 1월 12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를 참조.

- 아 래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6. 12. 11(월) ~ 12. 15(금) 09:00~18:00
 -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홈페이지(www.nvrqs.go.kr) 공고시 게재한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06. 12. 11(월) ~ 12. 15(금) 09:00~18:00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국립수의과학검역원내 본원 대강당 1층(세미나실) 외 각 지원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 합격자 발표 : 2007. 1. 26(금) 예정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게시
- 문의 : (031)467-1924

제3차 가금수급안정위원회 개최

AI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AI 발생에 따른 대응계획(안) 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우선 AI 배상책임보험은 닭·오리를 대상으로 수급위에서 자금을 보조해 가입이 가능토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조절사업으로 육계간급 수매에 대해 농

림부와 긴밀한 협의 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소비홍보 사업 중 TV 및 라디오 홍보와 의사, 약사, 한의사 및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시식회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키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배너 광고 및 일사일촌 자매결연 기업체에 대한 소비촉진 협조요청,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단체급식 등 소비촉진 협조요청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각 협회 등 생산자단체장을 중심으로 언론의 과장 보도 및 혐오보도를 자제토록 요청키로 했다(‘특집 1’ 56P 참조).

축산물등급판정소

‘우리축산물 홍보관’ 개관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11월 20일 본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 1층에 50여평 규모의 ‘우리축산물 홍보관’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하게 된 우리축산물 홍보관은 축산물등급판정사업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 정책사업을 상시적으로 홍보·교육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교육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동 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홍보관에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닭고기의 품질등급별 모형이 전시되어 관람객이 축산물의 품질차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며, 계란등급판정 시연장에서는 품질이 좋은 계란(할란상태),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 등을 전시하여 등급판정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그동안 타기관·단체를 방문하거나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이번 홍보관 개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사업안내는 물론 방문객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인근 주민학생, 유관단체 회원 등을 초청하여 등급판정사업과 축산정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I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지역의 닭·오리농가에 대한 예찰강화, 철새도래지의 분변수거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HPAI가 종식될 때까지 중앙본부 및 8개 도본부에 마련된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각 지역의 양계농장 방역실태 점검과 함께 질병발생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일일 보고토록 했다.

또한 검역원,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오리농장 등의 시료채취를 지원하는 등 수시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HPAI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